

지역 소식통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 새로운 주택공급 지속 추진"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에 새로운 주택공급을 늘려 누구나 손 쉽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 주거실태 분석 연구용역'이 마무리 됐다. 보고서는 "고창의 주택 수요대비 공급량이 적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안,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부안군은 반려동물 놀이터 등 절기 정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을 선운리 3-6(부안다목적 체육센터 부지 내)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난해 3월 개장해 반려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난해 8월에는 산책로 조성, 조경수 배치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 단장 했다.

고창군수, 파워리더대상 수상

심덕섭 군수 "삼성전자 등 친환경 ESG기업유치로 지역산업 생태계 판도를 바꿨다"

심덕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가 7일 서울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시상식'에서 '혁신경영부문'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발굴(의정, 행정, 도시드랜드,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부문)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이 주관한 가운데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도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의 주인공이 된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등을 유치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꿨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주)지텍, 삼성전자(주), 주)에스비푸드 등 3

개 기업 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를 통해 7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준 45%의 분양률을 보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고창군이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친환경'·'미래첨단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류센터나 통신소자 반도체의 특성상 용수는 적게 사용하고 오·폐수 발생량이 적어 주민생활 피해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를 보유한 보물도시로 도약했고,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시키며 1천만 관광객이 개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심 군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 사람을 결합해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할 활력 넘치는 고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상은 고창군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과 그 여정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세계유산도시 고창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가 7일 서울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시상식'에서 혁신경영부문서 대상을 수상했다.

'독립운동가' 김현곤, 정읍시 3월의 역사인물 선정

비밀결사 '15인회' 조직

정읍시가 3·1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김현곤(1900~1955)을 이달의 정읍 역사인물로 선정했다.

김현곤은 태인면 태흥리 출생으로 1919년 3월 16일부터 시작된 태인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다. 그는 3·1 만세운동 직전에 독립선언

서를 미리 입수해 송수연, 송한용 등과 비밀결사 '15인회'를 조직, 회장으로서 만세 시위운동 계획을 주도했다. 3월 7일 회의를 열고 3월 16일 태인 장날에 한병대의 정오 타종을 기해 만세 시위를 결정했다. 3월 16일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배포하면서 태인 만세운동은 시작됐으며 10여 일간 지속됐다. 태인 만세운동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으며 민가에서도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일본에 대한 항쟁을 이어갔다. 김현곤은 태인 만세운동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들과 연락하며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는 등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최대 75% 지원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25%는 시가 지원한다. 가입 범위는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

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기,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다만, 축산시설물의 경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지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

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 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과 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읍시,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운전기사 3명 확충, 택시 4대 임차 등

정읍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과 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장애 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 개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증차했다. 특히 운전기사의 피로도 개선으로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3명 더 선발해 총 21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8대의 장애인콜택시 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해 노후된 차량 1대를 오는 5월 교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불어 택시 4대를 임차해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자 △휠체어 이용대상자로 의사진단서 첨부자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다. 이용방법은 시 이동지원센터(063-536-9870)에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을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로 사전예약하거나 즉시콜제를 이용해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부안군은 최근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3~2027년까지의 부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2024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58개 과제를 12개 부서가 11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5대 핵심과제 중 일자리 분야는 기존 사업 외에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 지원 사업 외 2가지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며 교육 분야는 청년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자선에 맞는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인생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 복지문화 분야는 부안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 사업,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활동 홍보서포터즈 운영 사업과 청년UP센터 프리존 조성 사업 등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은 모두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의견이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친화도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1만여 명의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environmental campaign with text: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